

복지관·경로당 임시 휴관...헌혈 줄이어

전남·북 지자체 '코로나19' 퇴치 총력

대구·경북에서 재확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이 공포에 떨고 있다. 전남·북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는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방역소독요원을 읍·면·동까지 배치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은 휴관에 들어갔고,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은 임시 폐쇄됐다. 코로나 공포로 수혈이 급격히 줄면서 혈액이 크게 부족하자 지역민과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방역소독요원 긴급 채용

장성군은 24일부터 보건소의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 퇴치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또 코로나19 환자의 조기발견이 확산을 막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건물 소독을 완료했다.

장성군은 종교행사 등 다수가 집결하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 6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역상황반을 투입해 발열 확인과 건강상담,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진행 예정이었던 지역사회외 모든 다중집합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시설 임시 휴관·급식 도시락 대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체육시설과 장애인·어르신 이용시설을 임시휴관했다. 휴관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관 상반기 프로그램은 하절기에



지난 2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영상회의에서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군의 대응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신안군은 지난 21일 헌혈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주민 등이 헌혈에 참여해 따뜻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신안군 제공>



순천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순천교회를 폐쇄조치했다. <순천시 제공>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 중단...열화상카메라 추가 설치 방역소독요원 긴급 채용...민·관 협력 강화 차단 총력 순천 신천지교회 폐쇄...다중집회·종교활동 자제 요청

는데 관건이라고 판단, 장성터미널·장성역·장성병원 등에 열화상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공중보건조사·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단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읍면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순천시는 방역소독요원 24명을 긴급 채용해 읍·면·동에 배치했다. 또 매주 의·약·정 협의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정읍시는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가 다수 발생 시 '1대 1 공무원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능동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열화상카메라 2대를 추가 구입해 정읍시보건소에 배치했고, 방역소독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도 추가 채용했다.

고창군은 살균제·마스크·손소독제 등을 배부하고 포스터·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천지교회 폐쇄-종교행사 자제
순천시는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을 지난 22일부터 폐쇄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순천보건소는 차량 3대를 이용해 교회·성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방역하고 있다.

목포시와 익산시도 신천지 관련 종교

보강 운영하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급식이 필요한 대상에게 신청을 받아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다.

전주시도 지난 22일 모든 공공시설을 폐쇄했다. 시립도서관과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요양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각종 지원시설 등 전주시가 직영 및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다.

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내 실내수영장을 휴장하고 실내체육관 등 허가시설에 대해서도 사용을 중지하고 있다. 또 영광생활체육공원과 공동장·읍면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입출국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혈액 수급난에 '사랑의 헌혈' 줄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로 수혈이 급격히 줄면서 혈액이 크게 부족하자 지역민들은 자발적으로 '사랑의 헌혈'에 나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한 달 간 전국에서 총 206개 단체가 헌혈 계획을 취소했으며, 헌혈 보유량 적정치는 5일분을 크게 밑도는 3일분까지 떨어졌다.

장성군은 헌혈추진협의회를 열어 '사

랑의 헌혈'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24일 상무대, 28일 장성군청·소방서·경찰서에서 헌혈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년단체나 군민들도 참여 가능하다. 장성군은 발열감지카메라·마스크·손세정제 등을 헌혈버스에 비치하고, 채혈장비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만전을 기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유입으

로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등 국내 헌혈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안군과 담양소방서도 최근 21일 범국가적 위기와 혈액 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혈에 동참, 따뜻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전북취재본부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상해·질병 등 후유장애시 최대 5000만원 보장

익산시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본격 시행했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다.

이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을 대표보험사로 운영되며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 계약기간은 오는 2021년 2월 19일까지다. 향후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해 지속적으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해군·

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 상해보험 시행으로 약 2500명 정도의 장병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며 전역을 하면 해지된다.

보험료는 익산시가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익산=유영경 기자 yjy@kwangju.co.kr



정읍문화원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조선왕조실록 피난길인 전주 경기전에서 내장산 용굴까지 걷는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정읍문화원 제공>

정읍문화원, 조선왕조실록 피난길 걷기 행사

정읍문화원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역사 전문가들과 문화원 관계자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정읍의 안의(安義, 1529~1596)와 손홍록(孫弘祿, 1537~1600) 두 선비가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 기슭을 이끌고 62계곡에 달하는 실록과 어진을 경기전에서 내장산 용굴까지 옮긴 것을 재현한 역사교육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이안되었던 피난길을 걸으며 찾아보게 함으로써 지역 향토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한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개인

의 노력으로 국가의 문화재를 지킨 첫 사례다. 이를 기념해 정부는 지난 2018년 조선왕조실록을 정읍으로 옮긴 날인 6월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제정했다.

참가자들은 전주 경기전에서 시작해 내장산 용굴까지 약 66km를 걸었다. 첫날 경기전에서 출발해 완주군 구이면을 지나 정읍 산외까지 약 30km를 이동했고, 둘째날은 산외에서 출발해 침포를 지나 내장산 용굴까지 약 36km 걸었다.

김영수 정읍문화원장은 "이 행사를 통해 정읍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애郷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드론 활용 'AI' 선제적 차단

고창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에 대비해 드론항공방제를 활용한 선제적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내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에서 고창지역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 40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날아옴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고창군은 동림저수지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차단을 위해 동림저수지 주요 도로에는 살수차, 농로 및 저수지 주변에는 공동방제단 3개반을 투입해 소독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클래식 타일
지중해 스타일